

대부동행정타운 건립... 빠른 추진 필요한데 아직 보류상태



안산시는 지난 2023년 현재의 대부동행정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대부해안본부 인근의 사유지로 옮겨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밝히며 2024년 활발하게 준비작업에 들어간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고지대에 있고 경사가 높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대부동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市, 상동 주민들 반대이유 같지자 행보 안타깝다

지난 2023년 지은지 40년 이상 노후화 된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던 안산시가 두 해가 바뀌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부동에 통합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며 주

민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하고 대부해안본부 등 대부동에 분산된 행정기구를 통합해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시의 야심찬 계획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대부도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4일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81년에 건립된 '대부동행정복지센터'는 안산시 관내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고 좁은 주차공간, 진입로의 높은 경사 등으로 인해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도는 노인 연령층이 많고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직접 동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일이 잦아 현재의 건물이용은 노인건강에도 한계에 이르지 오래다.

새롭게 복합청사가 들어서는 자리는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대부119안전센터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가 같은 공간에 동지를 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중요한 것은 미래 대부도를 위해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하느냐의 문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까운 타 지자체의 예로 화성시청이 허허벌판에 들어섰지만 지금은 주변이 신도시로 변했고 시흥시청도 그린벨트에 들어섰지만 지금은 주변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창간사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과 대부도 주민여러분!

저희는 “대부도저널”의 창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25년 4월 7일, 타블로이드배판 신문의 형태를 갖추고, 올 컬러 12면으로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도저널은 단순한 지역 신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안산시의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를 다루며,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안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대부도의 발전을 제시하는 신문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항상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안산시의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를 전달하며, 여러분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저희는 대부도저널을 통해, 안산시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대부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부도저널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대부도저널이 안산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부도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안산 대부도 뱃길 드디어 공고내고 운영업체 선정 착수

앞으로 도선 1척과 유선 1척 도입해야 한다'요구'

안산 대부도 뱃길 사업이 드디어 열리는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운항에 들어가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안산시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관리위탁 운영'에 대한 입찰을 드디어 공고했다. 이제 4년이 지난 올해는 어떻게든지 시화호 뱃길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시의 발표를 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제안서 제출 시한을 4월9일까지로 하고 운

영인원 7명에 대한 향후 3년간 고정비 12억1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은 법인이나 단체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유선 또는 도선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배수톤수는 13.2톤(44톤의 30%) 이상으로 하고 유도선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로 제한했다.

심사평가사항으로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요구했으며 공동수탁자는 도선 1

척과 유선 1척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도선(여객선) 선정과정이다.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최대 관광호수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가 될 시화호에 제대로 된 도선이 운항되어야 통통배 같은 이름만 도선인 배가 운항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고를 접한 시민들은 “시가 지난 21년 최초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도선은 요트같은 느낌으로 편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배였다”면서 “이번에 입찰에서는 시화호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배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안산지부 회원일동

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

3월31일 시골우렁쌈밥
별실(본오동 960-12)서

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응기) 2025년 정기총회가 3월31일 오후 6시30분 시골우렁쌈밥 별실(본오동 960-12)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102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특별한 의의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38,39차 이사회 안건 의결 △24년 감사보고서 △25년 사업계획서, 예산서 △24-25년 차입금 승인 △신임대의원 선출 △정관의 변경 △기타 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김응기 이사장



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가 3월31일 오후 6시30분 김응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골우렁쌈밥 별실(본오동 960-12)에서 개최되고 있다.

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님들이 참석해줘 대단히 고맙다”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생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특히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더 챙기는 알찬 생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총회를 마친 대의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저녁을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대부동행정타운 건립… 빠른 추진 필요한데 아직도 보류상태”

〈1면에서 계속〉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무엇이 앞으로 대부도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게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의 고민이다.

복합청사를 신축할 부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인만큼 어떤 선택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먼저 편의성을 보아야 한다. 기존 대부동행정지센터 부근인 대부도서관 인근에 신축한다면, 시민들에게는 접근이 편리할 수 있다. 이미 익숙한 장소이며, 기존의 시설과의 연계도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장성도 중요하다. 미래를 바라보고 장소를 변경한다면, 미래의 인프라 및 도시 계획에 더 적합한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지의 확장 가능성, 교통 편의성,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하는 이유다.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북

동 대부해양본부 인근 시유지 부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방아머리와 구봉도를 끼고 있으면서 대부도의 강북이지만 최근에는 대부도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 및 자금문제도 중요하다. 부지 선택은 예산과 자금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이 도서관 부지나 해양본부 부지 모두 시유지다. 일단 부지 문제로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한가이고 추가 부지매입비가 필요한가의 여부다.

대부도서관 부근은 시유지 부지의 협소로 추가토지구입비가 필요하고 진입도로도 편도 1차선으로, 편도2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도로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해양본부 인근 시유지는 복합청사가 들어서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 인근 도로 역시 편도 2차선으로 건물 신축 비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

대부도는 향후 복합청사 인근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 인구 9천명이 3만명을 넘어 5만명 인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다가 더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인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안산시가 당초 추진했던 대부동 공공청사는 단원구 대부북동 1958번지(대부해양본부 인근)에 2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4,095.6㎡, 지상 4층 규모다. 2023년 추진을 밝혔고 오는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다.

신규 공공청사에는 행정업무시설 중심으로 ▲의료시설 ▲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 ▲금융기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시설배치안과 기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해 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공동화를 막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그러나 집단민원에 부딪치면서 섣뚱 부지 선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안산시의 고민이 길어지면 주민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시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안산시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발주하면서 내린 결론이 대부동 통합청사 건립부지로 현재 대부해양본부 인근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동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다시 부지결정을 유보하려고 하는 것은 안산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근 시장은 그동안 “안산시가 한 번 내린 결정은 그 어떤 집단민원이 들어와도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집단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에 물러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경수초 부지 활용 협의체 운영

관련분야 장학사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 후 진행
안산시, 복합시설 건립

안산시는 3일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폐교된 경수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상록구 성포동 소재, 지난 2000년 개교한 경수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폐교가 결정됐으며, 올해 신학기부터 경일초등학교에 통합됐다.

실무협의체는 관내 교육과 시설 관련 부서와 안산교육지원청 재산 및 시설 관련 부서, 초·중고 관련분야 장학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해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무

협의체에서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중지를 모아 예정이다.

3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첫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경수초등학교 부지 시설을 살펴본 뒤, ▲학교복합시설 공간 조성(안) 마련 ▲학생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반영 방안 ▲시설 운영·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지역주민·학교·유관기관 의견 수렴, 공간 선호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합시설 구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산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예정된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도시공사, 부패방지 방침 선포 ‘투명·공정 조직문화 확립’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일 열린 정기조회에서 부패방지 방침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달 12일 부패방

지 책임자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임명과 양성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제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날 선포식을 가졌다.

정희재 기자

조했다. 안산시가 민원인의 요구에 행정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가 자기 모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안산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안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회복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동 공공청사 일부 건립부지가 확보되면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주민들이 건립부지 선정을 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황토로 구워만든”

친환경 타일소금

해죽순 소금 / 녹차 소금 / 송하 소금 /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판매

소금지기 대표 김관중

M. 010-9080-119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전남 신안군 임자면 신명동길 49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AI 토크콘서트 진행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과 대동서적 사동본점에서
용혜인 · 박태웅 “국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기본소득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투자의 성과를 향유해야”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3월 28일 오후 안산 상록구 소재 대동서적 사동본점에서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과 AI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서태성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과 박태웅 센터장 모두 “국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기본소득 지급하여 국민 모두가 투자의 성과를 향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AI의 정의와 최신 흐름 그리고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박태웅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 AI에 대규모 투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3월 28일 오후 안산 상록구 소재 대동서적 사동본점에서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과 AI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하고 그 투자의 결실 또한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뒤이은 토크콘서트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이므로 그 투자의 성과를 국민 모두와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AI 발전으

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100여 명의 안산시민이 찾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용혜인)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안산시지역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수리산도립공원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1일(월) 성기항 의원과 함께 수리산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산불 예방과 등산객 안전 도내 도립공원 3개소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1일(월) 성기항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과 함께 수리산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 대책, 등산객 안전 확보, 시설 보강 및 환경 정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군포, 안양, 안산시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300만 명이 찾는 도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이다. 경기도에는 수리산도립공

원을 포함해 연인산도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총 3개소의 도립공원이 운영 중이며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산불 예방과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난해 겨울 폭설로 인한 나무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화장실 추가 설치와 주차장 확충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리산도립공원은 도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휴식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커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법

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이동노동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

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한빈이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23일 토요일 제 둘째 딸 한빈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한빈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어진 기쁨이 한빈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과 축복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빈이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빈이의 결혼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7.

대부도저널 편집국장 김태창 배상

대부도저널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창립모임 25일 개최

본지 사무실에서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용) 창립 모임이 3월 25일 오후 5시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모임은 첫 모임으로 대부도저널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윤성용 대표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윤 위원장의 인사말과 대부저널 양운영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 위원장의 신문사 직원 소개에 이어 운영위원들의 소개는 각자가 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주요 목적과 규칙이 소개됐고 향후 일정으로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각 운영위원들에게 전달된 대부저널 운영위원회 회칙(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 창립 모임이 25일 오후 5시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은 빠른 시일 내에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으며 주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은 아직은 서로를 잘 모

르기 때문에 운영위원 섭의를 진행해온 본지 임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운영위원들은 신문사 옆 백년

손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춘계 4구선수권대회 28일 대단원의 막 내려

우승은 건설업하는 정인기 선수가 차지 우승상금 30만원은 전액 회식하는데 기부

대부도 춘계 4구선수권대회가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16명이 리그전을 펼치며 개막전을 시작한 이후 4일간의 열전이었다. <대부도저널 인터넷판 3월 25일 보도>

우승은 대부도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정인기 선수가 차지했다. 결승에서 상대선수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치고 우승상금 30만원을 거머쥐었다.

우승을 차지한 정인기 선수는 “땀소 당구를 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운이 좋아 우승했다고 생각한만큼 우승상금은 오

늘 밤 당구장에서 참가선수는 물론 당구매이니아들과 회식하는데 전액 기부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춘계 4구선수권대회는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대부항금로 1478, 오션시티종합어시장 2층에 위치한 매니아당구클럽에서 열린 이후 8강, 4강, 결승전까지 모두 매니아당구클럽에서 진행됐다.

매니아당구클럽 임하성 대표는 “올해 처음 시도한 4구선수권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응원을 와주어 감사하다”며 “2회 때부터는 더 많은 당구 매니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춘계 4구선수권대회가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16명이 리그전을 펼치며 개막전을 시작한 이후 4일간의 열전이었다. 사진은 우승을 차지한 정인기(사진 오른쪽) 선수의 모습이다. 마친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협동조합 제12차 정기총회 28일 개최 ‘하나 강조’

선감동 소재 경기창작캠 2층 생활동 세미나실에서

대부도협동조합(이사장 양운영) 제12차 정기총회가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선감동 소재 경기창작캠퍼스 2층 생활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이사장 인사말,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선임, 안건상정, 폐회선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본지 회장이기도 한 양운영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조합도 지난해에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곳 선감도 경기창작캠퍼스로 주사무소를 옮겨서 제2의



대부도협동조합 제12차 정기총회가 28일 오후 3시부터 선감동 소재 경기창작캠퍼스 2층 생활동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총회를 마친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도약과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고 있다. 조합원도 900명을 넘어 1천명을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여 탄소저감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조합원과

출자금의 증좌가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또 “올해는 조합원 1천300명 달성이 목표다”며 “대부도가 품고 있는 시화호 활용 방안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추진하는 시화호 수상태양광사업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이어서 최인모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품권을 전달했다.

계속해서 주요 안건으로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25년도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참석이사들의 박수와 함께 통과시켰다.

주요안건이 마무리된 뒤 안산시민협동조합 이사장이면서 대부도협동조합 이사로 있는 이창수 전 안산시의원은 ‘안산의 시민주도형 시화호 태양광발전사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대부도협동조합과 안산시민협동조합은 ‘하나’입니다”라고 강조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계속해서 참석한 이사중 몇 명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들은 대부도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미래사업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 토지분양 / 컨설팅



양지개발

대표 김상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안산육상 축제 와~스타디움에서 열려

제37회 교육장배 안산 학생육상대회 개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3월 3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시 초·중학교 학교 대표 선수 1,000명이 참가하는 제37회 교육장배 안산 학생육상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 안산 교육 가족 1,5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장배 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본 대회는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안산 지역 최종 선발전을 겸하여 치러진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훈련 성과에 따른 최선의 경기력으로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대회 결과에 따라 각 종목별 수상자가 발표되었으며, 이들

은 오는 4월 8일~10일에 열리는 교육감기 육상대회에 안산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영예를 얻었다.

안산 학생육상대회는 매년 육상 기대주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좋은 기회이자,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수진 교육장은 "본 대회가 학생들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적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및 안산시육상연맹, 안산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체육활동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호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육상 축제, 와~스타디움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해조정지원단 방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1일, 안산교육지원청 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해조정지원단의 특별한 방문을 맞았다.

이번 방문은 교육기관 간의 화해중재(화해조정) 시스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화해중재(화해조정) 시스템 운영 및 학교폭력 관련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관 방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해조정지원단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안산교육지원청 청사 내의 ▲학교폭력제로센터 ▲Wee센터 ▲교권보호센터 ▲스마트 오피스 등을 견

학하였다. 이를 통해 안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 및 학생 지원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주도 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폭력 안심지원단의 역할을 소개했으며, Wee센터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행정 혁신 사례도 살펴보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교류하고, 양 기관의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일, 안산교육지원청 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해조정지원단의 특별한 방문을 맞았다. 김태창 기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기관 간 협

력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화해중재 및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TP, 2025년 지역 맞춤형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본격 시행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가 3월 27일부터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역 수요기반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기초지자체와 도내 드론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우수한 사업을 제안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참여로 지역현안 해결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모델을 발

굴하고 실제 서비스 실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2억원으로, 해당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지원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요 기반의 드론 활용 모델을 구체화하고, 도내 드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도내 드론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음 달 28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게시글 150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안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5학년도 학과 MT 마무리

이번 MT는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주도로 기획된 것

안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부장 박향숙)는 지난 28일과 29일 신입생 및 재학생 51명이 참여한 M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MT는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주도로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협동심과 단합력을 발휘하며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만들었다.

이번 MT를 주최한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대표 김예인은 "학과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



안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지난 28일과 29일 신입생 및 재학생 51명이 참여한 M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윤성용 기자

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었다", "바베큐 파티에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MT는 학업에 열중한던 학생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식품영양학과는 학생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는 식품, 영양, 조리의 융합으로 K-food의 맛있는 건강함을 창조하는 식품영양인 양성을 목표로 영양헬스케어와 푸드테크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공방 010-4071-2797



대부동, 따뜻한 봄 맞아 곳곳에 봄꽃 식재



단원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1일 아름답고 쾌적한 대부동 환경 조성을 위해 동청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 근처에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봄꽃을 심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봄꽃 식재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부동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 지역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관광객들이 혹시

모르고 쓰레기를 버릴수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부동은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안산사랑 대청소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부동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봄꽃 식재는 안산사랑 대청소의 하나로 추진돼 대부동 주민과 대부동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봄 향기를 선물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부곡동 새마을회,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상록구 부곡동 새마을회는 지난 2일 안산시 행복나눔터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급식 봉사에는 부곡동 새마을회원 20명이 참여해 정성껏 준비한 밥, 전, 김치 등 총 500인분의 음식을 제공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부곡동 공유냉장고를 통해 반찬 나눔 행사로 이어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곡동 새마을회는 무료 급식 봉사를 비롯해 ▲환경정화 쓰레기담(기) 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농작물 재배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부곡동 새마을회는 이번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항 기자

사동 '좋은이웃 봉사단'희망찬 첫걸음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더불어 사는 사동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안산중앙교회와 함께하는 '좋은이웃 봉사단'이 희망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사 등 이웃들의 추천을 받아 공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 이웃의 힘으로 도움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동 안산중앙교회(담임 목사 한승엽)에서 모집한 봉사자와 사동 직원들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 6가구를 방문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전했으며,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기록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학용품 나눔



상록구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용품 나눔 행사와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용품 나눔 행사는 다울봉사단(단장 임영빈) 후원으로 성포초등학교와 경일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연필 1,600자루를 전달했다.

전달식 이후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은 시외버스터

미널 외곽 및 상가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해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정리 작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수현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에도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자율방범대 본오1지대, 장학금 전달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자율방범대 본오1지대에서 '2025년 이웃돕기 옷놀이대회' 수익금을 지역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방범대 본오1지대(지대장 윤보영)는 지난 2월 16일 열린 '2025년 이웃돕기 옷놀이대회'에서 모은 수익금과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

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등 본오1동 7개 직능단체의 후원금을 합해 총 120만 원을 마련했다. 이 금액은 관내 중학교인 이호중학교와 본오중학교 학생 각 2명씩, 총 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김종만 본오1동장은 “앞으로도 본오1동이 더욱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해양동 자율방재단,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상록구 해양동 자율방재단은 지난달 31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단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철저한 안산시 자율방재단장이 재난 발생 시 방재단의 역할과 활동, 단계별 임무 및 방재 활동의 중요성 등을 강의해 자율방재단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선해 해양동 자율방재단 대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해양동 자율방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정아 해양동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 재난 대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일동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세무사 최욱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NH은행 인천본부, 웅진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NH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웅진에 전달

웅진군은 2일 NH농협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오승철)직원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일동은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인정하고 있는 단체로, 웅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꾸밈없는 봉사 정신과 웅진 사랑을 보여줬다.

오승철 본부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이 웅진군의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계속되길 기

원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1등 은행으로서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일동께 고마움을 전하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 필요한 분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기부액의 30%를



NH농협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오승철)직원일동이 2일 웅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윤성용 기자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웅진군은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및 생활인구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기금사업 공모 중에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웅진청정호’ 취항

연평도 및 근해도서의
해양쓰레기 운반 차도선

웅진군은 2일,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연평도 및 근해도서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차도선 ‘웅진청정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취항식에는 문경복 웅진군수를 비롯하여 배준영 국회의원, 이의명 웅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신영희 인천시의원, 전종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 해양환경공단 나선철 인천지사장, 영흥수협 임병묵 조합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웅진청정호의 첫 항해를 축하했다.

‘웅진청정호’는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연평면 조업 폐그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근해도

서 및 무인도의 해안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운반·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인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안쓰레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 만재 210톤, 적재량 78톤 규모의 웅진청정호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하역을 위한 크레인 및 부선이 탑재되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최적화되어 있다. 선박은 인천항을 출발하여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및 자도·무인도를 순회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은 2일,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연평도 및 근해도서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차도선 ‘웅진청정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웅진군민 한 목소리,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문경복 웅진군수와 이의명 웅진군의회의장, 정진현 웅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웅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이 2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양윤영 기자

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웅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 “연안여객터미널은 웅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웅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웅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윤영 기자 debora7@naver.com

웅진군민 서명부
인천광역시에 제출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웅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웅진군수와 이의명 웅진군의회의장, 정진현 웅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웅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지하철3

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웅진군추진위원회’에서 웅진군민과 섬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웅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2026~2035)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

웅진군, 선진 농업현장 견학 통해 농업인 역량 강화 추진

웅진군농업인학습단체
임원 현장교육 시간 가져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웅진군농업인학습단체 임원 26명을 대상으로 충남 논산, 전북 군산, 예산군 등 3곳의 선진 농업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농업경영 기법과 신소득작물 재배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치유농업시설을 방문해 원예작물과 동·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업의 단순 생산을 벗어난 농업의 6차 산업 모델을 경험했다.

이어 전북 군산의 바나나 농장 방문해 아열대 작물 재배 시

설을 이용한 재배 기술을 배우는 등의 선진 농업현장을 견학한 후 예산시장을 방문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교육에 참석한 한국농촌지도자 및 한국생활개선 웅진군연합회 회장(최창선, 김희

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치유농업과 기후변화 대응형 아열대 작물 재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웅진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내가 쓰는 낚시대도 신용이 있습니다
100% ‘국내제작’ 판매부터 A/s까지 더존이 책임지겠습니다
낚시대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존이 함께하겠습니다

더존 피싱

Deojon Fishing

CBS 173
Made in Korea
김윤호 010-3732-0331

수원, 토야 프렌즈의 사랑 모으기 음악회



수원시 통기타 동아리와 함께 하는 토야프렌즈의 사랑모으기 음악회가 매주 일요일 수원 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신의 1%가 누군가의 100%', '여러분의 파스한 손길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큰 사랑이 됩니다.'라는 모토로 시작하는 이번 음악회는 화서1동 피

크타임, 화서2동 통통배, 천천동 소리풍경과 해피프렌즈, 원천동 기사모, 우만2동 아띠홀 등이 함께한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경기도공동모금회, 파장천 어울림 번영회, 수원니드기획이 도움을 주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터널 리턴’ 경기대표 ‘경기 이네이트’, 경콘진과 함께

훈련비·출전비·홍보 등 전폭적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1일 광명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경기 이네이트(Gyeonggi Innate)’ 팀과 e스포츠 대회 출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이네이트는 정진호(23, JINho), 윤영진(26, ZeroJin), 전인국(26, ing9), 최경렬(25, DaSoo) 선수로 구성된 e스포츠 팀으로, 님블뉴런이 주최한 ‘2024 이터널 리턴 내셔널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 이네이트는 2년 연속 경기도 지역연고팀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경콘진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연고팀을 창단·지원하는 ‘e스포츠 대회 출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이터널 리턴’ e스포츠 경기도 대표팀 ‘경기 이네이트’ 출전 지원 협약식 사진이다.

윤성용 기자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이네이트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대회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콘진 탁용석 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에 우승을 안겨준 경

기 이네이트와 동행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라며,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으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기 이네이트가 더욱 돋보이는 강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

고 밝혔다.

한편, 경기 이네이트는 오는 5월 플레이엑스포 현장에서 개최되는 ‘2025 이터널 리턴 내셔널 리그 개막전’에서 대회 2연패를 향한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道,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지원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양운영 기자

연인산도립공원 2025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웅장계곡을 걷는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

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숲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속으로 풍덩’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환경교육 및 자연놀이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행복드림(林)’과 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탐방안내소 한쪽에 마련된 공방에서는 탐방객들이 우드버닝을 이용해 열쇠고리, 압화과자연물 등을 만들어 보는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과 네이버 카페(연인산도립공원), 전화(031-8008-8136) 또는 탐방안내소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윤성용 기자

사람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

되던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성원 전기

대표: 조억 M: 010-4632-9779

팬션, 주택, 신축, 개축, 전기A/s 고장수리, 전기, 조경공사 일체

양운영 본지 회장, 초대에 이어 제5대 회장에 또 다시 추대 “안산시관광협의회장을 또 맡게 돼 기쁘지만 책임감도 느낍니다”

본지 회장인 양운영(66) 회장이 지난 2월 28일 안산시관광협의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초대 회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초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안산시 관광협의회의 초석을 다졌던 양 회장이 이번에 또 다시 회장에 취임한 것은 관광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협의회가 4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5대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경험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양 회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풍부한 안산시 관광자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의 대부도 하면 전국 최고의 펜션단지인데 한 번 찾은 고객이 또 찾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운영 회장의 5대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초대 회장에 이어 다시 한 번 안산시관광협의회장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다시 한 번 안산시관광협의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대 회장으로서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관광자원은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산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안산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안산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산의 아홉가지 관광지인 ‘안산九경’을 제대로 알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산九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는 먼저 ‘안산九경’의 매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사진작가나 영상작가를 고용하여 ‘안산九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고, 이를 SNS나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관광안내소나 관광지 주변에서 ‘안산九경’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안산九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산九경’은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회장님께서 ‘안산九경’ 중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산九경’ 중에서 저는 ‘시화호’를 가장 추천합니다. 시화호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 하나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시화호 뱃길이 열리면 시화호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전국최고의 다문화도시답게 전국에서 안산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다문화축제나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안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다문화적인 특징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안산의 다문화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도는 전국 최고의 펜션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펜션단지에 관광객이 넘쳐나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대부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대부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요리나, 대부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대부도를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에서 머물고 즐기고 맛있게 먹고 가는 관광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산에서 대부도로 가는 교통편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대부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부도에서 숙박할 수 있는 펜션,



지난 2013년 안산시관광협의회 초대 회장에 추대됐던 본지 양운영 회장이 또 다시 12년이 지난 2025년 제5대 회장에 추대됐다. 양 회장은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섬세한 리더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대부도저널 회장, 보은용사촌(주) 대표이사,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 회장이 대부도 옛 지도 앞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두 팔을 활짝 펼쳐 보이고 있다.

리조트, 호텔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대부도에서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부도에서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대부도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산시관광협의회가 발전하려면 회원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회원을 늘리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관광협의회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협의회에 가입하면 다양한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관광협의회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저는 ‘스마트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관광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스마트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관광협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산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진행한 주요 활동 중 회장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최근 안산관광협의회가 진행한 주요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안산九경 스탬프 투어’입니다. 이 활동은 ‘안산九경’을 방문하여 스탬프를 모으는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계신데, 어떤 주체들과 협력하고 계신가요?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저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은 물론,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등 관광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관

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등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등이 있다면, 저는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꼽고 싶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진 :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 ①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15년 전 대남초등학교에 심은 해당화가 인연이 되어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가 대부도로 밝혀짐

엘레지의 여왕 이미지 가수의 3대 명곡인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인 대부도 관련 증언, 지리적, 사회적, 자연환경인 면의 분석과 포럼 개최, 노래비 건립, 팬카페 활동 및 이미지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 해당화길 조성 등 20 여회 연재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로 시작되는 1965년 발표된 ‘섬마을 선생님’ 노래는 우리 국민 누구나 애창하는 국민가수 이미지 선생님의 3대 명곡이다. 이 노래의 배경지로 ‘남해안 어느 섬, 혹은 대이작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노래의 배경지가 대부도라 하면 믿지 않았던 것은 1966년 서울 중앙방송국의 이경재 연출가의 ‘섬마을 선생님’ 라디오 드라마와 1967년 이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 영화의 스토리와 촬영지가 남해안이나 대이작도 노래비 때문이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배경지가 정확히 밝혀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10년 4월 6일 대부도 남3리 고랫부리 횃집에서 KBS 사극 ‘용의 눈물’ 김재형 PD로부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남초등학교이고, 이 학교 총각 선생님이 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증언을 대남초등학교 김 교장이 듣게 되었다.

대남초등학교 화단에 해당화를

심게 된 것은 1960~70년대 대남초등학교 주변 바닷가에 해당화 군락지가 많았다는데 당뇨병 특효약이라 모두 캐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화 꽃은 향기가 좋고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약나무이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첫 구절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며 해당화를 심어달라는 부탁을 마을 어른들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던 중 ‘2009년도 생명의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일천만 원씩 3년간 지원받게 된 수목 구입 예산에 해당화를 포함하였다. 이 해당화 심기가 교가(校歌) 보다 많이 불렀던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와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대남초 김 교장은 해뜨는마을펜션(현 해바다펜션) 공사 책임자인 정(鄭) 소장(所長)과 식사를 여러 번한 사이라 김재형 PD에게 인사를 시켰고, 고랫부리에 온 이유는 “해뜨는마을펜션 홍보 영상 제작 협의차 왔다”고 하였다.

김재형 PD는 “정 소장와 형·아우 하는 사이”라 하였다. “먼 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예전에 많았던 해당화를 화단에 심고 직원들과 저녁 먹으러 왔다”고 하였더니, 김재형 연출가께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발표될 당시 대남초등학교 바닷가 모래 언덕은 해당화 군락지였을 뿐만 아니라 갯벌에 철새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서울중앙방송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이경재 작사자와는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대부도를 다녀간 후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가 나왔다”고 하였다.

그 후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부도라 해도 주민들도 믿지 않아,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라 주장하는 흑산면 하테도, 완도군 금당도, 웅진군 대이작도와 소야도, 안산시 대부도의 지역 여건, 자연환경, 작사자 일행의 접근성, 학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9년 4월 10일 안산시청 대강당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로서의 지위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후, 2020년 2월 이미지 선생님 팬클럽 나미주 회장을 만나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 조사 보고서 및 포럼 자료와 언론 기사 스크랩 파일’을 이미지 선생님께 전하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조사 내용, 공연 동영상, 노래비 건립 등을 엘리지의 여왕 이미지 팬카페에 올려 공론화시켰다.

이어 안산과 대부도 단체 및 대남초동문회 모금으로 2020년 8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건립한 후 이미지 선생님도 만나고, 2023년 말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를 찾아서’란 도서를 발간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 등 포털 검색 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부도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와 안산의 새로운 시선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저널이 드디어 창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창간을 준비하면서 사무실 마련, 취재 및 기사정리, 신문 제호 선정, CI와 제호 글씨체 구상 등 바쁜 하루 하루였습니다.

이번 대부도저널의 창간은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고 대견스러운 우리 모두의 작품입니다. 이제 대부도 저널은 대부도를 중심으로 안산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는 대부도와 안산이 하나로 어우러져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도는 안산의 소중한 자산이자,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도는 관광지나 휴양지뿐만 아니라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부도저널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부도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도저널은 대부도와 안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도저널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여, 대부도와 안산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대부도의 발전은 안산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도저널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다루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도와 안산이 함께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도는 주변에 시흥시와 화성시를 천구로 두고 있습니다. 광활한 시화호와 시화호 습지를 비롯한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대송단지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대송단지의 변화는 안산의 변화, 대부도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행정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미래세대가 사용처를 정하고 용도로 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도저널은 미래세대가 고민해야 할 숙제를 함께 풀어내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대부도와 안산시는 대부도 보물섬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SOC구

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산 중심지에서 대부도까지 도로망과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송산 연결도로 확충안을 대부남동까지 4.3km 확장하는 계획과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의 대부도 연장 구상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들입니다. 대부도저널은 그런 일들이 좀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장대한 꿈에 안산시민과 대부도 주민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저널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대부도저널의 창간은 대부도와 안산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대부도저널이 지역 사회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대부도와 안산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바다 낚시업의 활성화와
바다 낚시인의 더 나은 힐링 장소를 위해
기여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바다 낚시를 대표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바다 낚시의 선진화를 위한
교류 협력, 홍보, 정책개발, 회원사의 경영역량 기강화 및 권익창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보전과 국민레저의 질적 향상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바다낚시연합회는 100만 낚시인과 바다낚시업 사업주의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연합회 회장 조부형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